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 본문

히 6:19-7:3

■ 시작 찬송가

88, 93, 421장
(통 88, 93, 210장)

■ 헌금 찬송가

287, 292, 325장
(통 205, 415, 359장)

▶ 멜기세덱

1.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

1)영원하다.

(히 6:20, 7:3)

2)제사장

(시 110:4, 히 7:11,15,17)

3)왕이 되셨다.

(히 8:1)

우리의 소망, 메시아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하며, 힘을 모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지만 오늘날까지 나라에 힘이 되어주고,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사 61:1-3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회의 어느 기관이든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성전을 귀히 여깁니다. 세 번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항상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 전진해야 합니다.

시 37:9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 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메시아

메시아(Messiah)는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53:4-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는 한 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하여 지금이 2019년이 되는 것입니다. AD(Anno Domini, 주님의 해)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드시려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다하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계시를 받거나 혼돈에 빠져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로마에 의해서 확실히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전 15:3-8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하다’입니다. 그 무엇보다 높으시고, 아름다우시며,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1:4-6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신분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의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영원전부터 계셔서 족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축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이십니다.

히 7:1-3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며, 온갖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설령 탈출했다 하더라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시자의 눈을 피해야 하고, 다시 붙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셨다는 것은 탈출이 아니라 해방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갈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이드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안내를 따라가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요 10:10-11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 멜기세덱의 일반적 사항

- 1) 족보가 없다.
(히 7:3)
- 2) 의의 왕이다.
(히 7:2)
- 3) 살렘 왕이며, 제사장이다.
(창 14:18-19, 히 7:1)
- 4)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창 14:19, 히 7:1)
- 5) 아브람(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았다.
(창 14:20, 히 7:2,4,6)
- 6) 아브라함보다 높다
(히 7:4-8)

오늘의 한마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